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대만이 가르치지 않는 중국 근대사
(台灣不教的中國近代史 - 한국어번역논문)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 中 科

李 庸 碩

2018年 12月

대만이 가르치지 않는 중국 근대사

(台灣不教的中國近代史 - 한국어번역논문)

指導教授 金 中 燮

李 庸 碩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12月

李庸碩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趙 以 植



委 員

宋 珉 宣



委 員

金 中 燮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8年 12月



- 번역에 들어가며 -

2018년, 격화되는 미중 무역분쟁을 지켜보면서 중국 근대사 특히 아편전쟁에 관심이 있습니다. 애초에 미중 무역분쟁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런 리더십을 원인으로 보아 크게 생각하지 않는 시각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미중간 근본적 이익 혹은 인식의 차이를 분쟁의 원인으로 보아서 장기적 분쟁을 예상하는 시각입니다. 분쟁 초기와 달리 현재는 첫 번째 시각보다 두 번째 시각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편전쟁이라는 과거 역사에서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현재의 맥락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번역하였습니다. 인식 없는 행위는 존재하기 힘들다는 관점에서, 아편전쟁 당시 황제와 관료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주로 관찰했습니다. 현재로 시각을 돌리면, 미중 리더들의 세계관 내지 가치관과 동떨어져서 작금의 미중 무역분쟁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편전쟁 당시 주인공들의 인식과 현재 미중 리더들의 인식을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대만에서 가르치지 않는 중국 근대사

중화민국은 왜 지금처럼 되었는가?

제1부 중화민족 비참하게 세계로 편입되다

서언 아편전쟁(鴉片戰爭), 일본을 깨우다

아편전쟁(鴉片戰爭)은
자신을 최강대국으로 여기는 고대 제국과 새로 즉위한 최강대국간의
세력 대결이다.

청조(淸朝)의 운명을 바꾼 두 가지 식물

약 170년 전, 인구 3억명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스스로를 ‘천조(天朝)(하늘의 조정)’라 자부하던 대국이 고작 두 가지 식물 때문에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여기서 대국은 바로 동아시아의 청나라를, 두 가지 식물이란 바로 차(茶)와 아편(鴉片)을 말한다.

비록 식물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천문학적인 화폐의 흐름을 의미한다. 유혹적인 돈의 흐름 뒤에는 음모와 위기가 숨겨져 있다. 화폐 유통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은 바로 세력 대결의 시작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에 세력 대결의 싸움을 걸어온 나라는 유럽 서북부에 위치한 브리튼 군도의 대영제국이다.

1840년 6월 청나라 조정은 아편(鴉片)의 수입과 사용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시도한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에 아편을 팔려고 하는 영국과 해상 및 육상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아편전쟁(鴉片戰爭)’이다. 아편전쟁은 2년간 지속되었다. 청조(淸朝)는 전쟁이 끝난 후 패배의 굴욕을 삼킨 것은 물론, 1842년 8월 중국 역사상 최초의 불평등 조약에 서명하게 된다.

청조는 방대한 인구와 영국의 수십배에 달하는 영토를 통치하고 있고, 군사 면에서도 88만명의 관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서 영국은 아편전쟁에서 많아야 2만명을 동원했을 뿐인데, 청조는 왜 이렇게 쉽게 전쟁에 지고 영국에 굴복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하게 되는 의문이다. 여기서 바로 그 진정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 보자.

외형만 크고 실속 없는 나라, 다섯 가지 내부 문제

먼저 아편전쟁(鴉片戰爭) 전 청조(淸朝)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조 또한 역대 왕조가 그랬던 것처럼 농업을 국가의 기반으로 했다. 주요 산업은 농업 혹은 소규모 수공업이고, 소비 구매력 또한 농민 혹은 가내 수공업자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즉, 자급자족의 자연경제인 것이다. 자급자족이라는 표현은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폐쇄’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명나라 초기의 관료 정화(鄭和)는 1405년에서 1433년 동안 7차례에 걸친 항해를 통해서 서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의 30여개 국가를 방문한다. 이것은 확실히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밤 하늘을 수놓는 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를 계승하는 자가 없었다. 정화 이후로 중국은 국경을 벗어나 세계를 탐험한 적이 없다. 청조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한 마리 사자와도 같았다. 달리 말하면, 아편전쟁 전의 청조는 아직도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당시 사회 문제를 살펴보자.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인구 급증이다.

통계를 보면, 건륭(乾隆) 6년(1741년) 인구는 143,411,559명이었지만, 가경(嘉慶) 16년(1811년)에 이르면서 358,610,039명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7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인구 성장율이 250%를 초과하는 폭발적인 수치이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인당 농지가 감소한다. 경작지가 감소하면서 농민은 생계 수단을 잃고 유랑민으로 전락한다. 유랑민의 폭증은 수 많은 범죄행위로 연결되고, 사회질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관료의 부패이다.

예를 들면, 건륭제의 총애를 받던 대신 화신(和珅)은 건륭제의 붕어 하루 뒤에 곧바로 황위를 계승한 가경제에 의해서 하옥되는데, 그 이유는 뇌물과 해야릴 수 없이 많은 죄명이었다. 화신의 집을 조사한 결과, 금은 보화와 토지 등의 부동산을 포함하

는 재산이 8억량을 넘어섰는데, 이것은 청조(淸朝) 20년 동안의 재정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화신은 하옥된지 10일 만에 감옥에서 강제로 자결하게 되고, 이로써 이 부패 사건은 간신히 종결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관료의 부패 문제는 일찍이 국정 깊숙한 곳까지 만연되어 있었다. 따라서, 겉모습에 불과한 태평성세(太平盛世)가 지나자 내부의 부패 문제는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문제는 바로 군대의 부패이다.

청조의 군대는 88만명에 달한다. 이것은 수치로 보면 놀라운 일인데, 실제 전력은 어땠을까? 청나라 군대는 처음 중원에 진입할 때에는 용맹함으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아편전쟁에 이르러서 기병대에는 말이 없고 수군은 수영을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조의 전력은 극히 낙후되었다. 전투력을 논하는 것은 고사하고, 청조의 방대하고 부패한 군대를 먹여 살리려면 매년 2천만량의 은자가 필요했는데, 이 금액은 청조(淸朝) 재정 수입의 절반에 달했다.

네 번째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족(漢族)과 만주족(滿州族) 간의 숨길 수 없는 민족차별 문제이다.

청조는 소수 민족인 만주족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한족을 통치하는 모순된 통치구조였다. 이는 피의 정복과 여론을 통제하는 폭압적 통치를 낳았고, 두 민족 사이의 갈등은 끊이지 않게 되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각 지역의 저항 운동이다.

네 번째 문제인 민족간 갈등은 그 자체가 민중의 저항을 유발하는 원인이었다. 백련교(白蓮教)가 갑자기 세력을 얻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백련교는 송대(宋代)에 유행한 불교 단체인데, 원대(元代)에 반정부 무장단체로 확장된다. 청군이 중원을 장악한 이후에는 ‘반청복명(反淸復明)’을 주장하면서 그 신도가 크게 늘었다. 건륭(乾隆)제 말기(1769년 즈음)부터 백련교의 저항 운동은 더욱 극렬해졌다. 운동에 참여한 인

원이 20만 명에 달하고, 저항 운동의 화염은 호북성(湖北省) 사천성(四川省) 허남성(河南省) 섬서성(陝西省) 감숙성(甘肅省) 등지로 옮겨 붙었다. 청조는 10년 동안 약 2억량 이상의 은자를 들여 백련교를 진압한다.

앞에는 무역, 뒤에는 무력

청조가 상술한 각종 문제를 겪는 동안에,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 19세기 초 영국은 연간 철강 139만 톤, 석탄 3천만 톤을 생산했는데, 이것은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프로시아 3국의 생산량을 합한 수치의 3배 크기였다. 또한, 노동력의 2/3가 공업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영국은 이미 공업 국가라고 할 수 있었다.

군사 면을 보면, 영국은 1815년 워털루 전쟁에서 숙적 프랑스를 격퇴하면서 드디어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 대륙에서의 승리와 함께, 영국 왕립 해군은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 함대를 전멸시키면서 명성을 떨쳤다. 영국은 1830년대에 이미 5백 척의 크고 작은 군함을 보유하고 있어서 근대 해전에 함대를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영국의 뒤를 이어서 미국, 프랑스, 프로시아,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점차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이들 국가의 야심은 세계를 대상으로 영토, 정치, 경제, 종교 그리고 문화 각 방면에서 확장을 꾀하는 것이었다. 영국을 위시한 열강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품의 생산력 제고 이후 가장 필요한 것은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시장(消費市場)을 개척하는 것이었다. 이때, 영국이 눈독을 들인 최고의 소비시장이 바로 중국이었다.

강제적 시장 개방

영국은 시장 개척을 위해서 처음부터 청조에 무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영국은 건륭제와 가경제 시대에 수 차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자 시도한다. 건륭 58년(1793년) 조지 맥카트니(George Macartney)는 스픿헤드(Spithead)에서 중국을 향하여 출항한다. 그는 영국을 대표하는 특사의 신분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북경에 요구했다:

1. 영국이 북경에 대사관을 설립할 수 있을 것
2. 영파(寧波), 주산(舟山), 천진(天津)을 통상 항구로 개방할 것
3. 관세 조례를 제정 공포해서 관세 추징을 명확히 할 것
4. 주산 부근 도서지역을 영국 상인의 휴식과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상술한 요구 사항들은 몇 번을 다시 보더라도 특별히 부당한 것이 없다. 청조가 만약 근대적인 외교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대사관 상호 설립을 통해서 양국의 협상 교섭 창구로 삼아 평등한 양국 관계를 수립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건륭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과거 중국에 왔던 타국 혹은 이민족은 대다수가 문화 또는 문명이 뒤쳐졌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중국으로 왔었다. 따라서, ‘천조(天朝)’의 ‘천자(天子)’를 알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궤구고(三跪九叩)’의 예를 지켜야 했다. ‘삼궤구고(三跪九叩)’란 천자를 뵈는 때에 반드시 3번 큰 절을 올리고, 머리를 9번 바닥에 닿게 하는 예법을 말한다.

급변하는 세계 정황을 모르는 건륭제에게 영국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다. 황제는 관례처럼 맥카트니 특사에게도 예법을 기대했지만, 맥카트니 특사는 그의 예상과 달리 이를 거절한다. 그러자 협상은 결렬되고, 양국 관계 또한 파국을 맞이했다. 가경제 시대에도 같은 사건이 반복되었다. 청조는 스스로의 무지와 오만으로 인하여 세계와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었다.

한편, 영국은 계속된 협상 실패를 경험한 후, 결국 청조와의 평화적인 협상에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아편전쟁에 이르면, 서구 제국은 청조에 평등한 대우의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다. 현재 시각으로 보면, 저자는 개인적으로 당시 서구 열강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해서 대단한 분노의 감정은 들지 않는다. 비판적인 역사관에서 볼 때, 오히려 청조가 겪은 굴욕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 자신의 우매함 때문이므로, 스스로를 되돌아 볼 일이다.

아편은 영국의 국영 사업

이어서 당시 중영(中英)무역의 실상을 살펴 보자.

영국은 애초 신사 숙녀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차(茶), 도자기, 그리고 잠사를 대량 구매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모직 제품과 면직 제품을 수입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생활 습관 상의 차이로 인해서 영국 제품은 중국에서 환영 받지 못했다. 이는 영국의 자본이 계속해서 중국으로 유출되는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영국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된다.

1781년에서 1790년 사이의 10년 동안에 중국의 대 영국 차(茶) 수출 금액 만으로도 9천6백만 은원(銀元: 15세기~19세기 세계에 유통된 은 주조 화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영국의 대 중국 수출 총액은 1천6백만 은원, 즉 차(茶) 수입액의 1/6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에 불과했다. 이처럼 영국은 중국과 거액의 무역 적자에 시달렸다.

영국은 이러한 거액의 무역 적자를 방관할 수 없었다. 거기에 더해서, 18세기 후반 미국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 영국은 신대륙에서 계속된 전쟁을 치른다. 이로 인하여 재정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단아한 영국 신사가 경제 문제 때문에 점차 조급해지더니, 결국 괴물이 되고 말았다. 해결책을 못 찾은 영국은 최후의 방법으로 놀랍게도 중국에 아편(鴉片)을 밀수출한 것이다.

당시 아편(鴉片)의 주요 생산지는 동남아, 터키 그리고 인도 등지였다. 그중에서도 인도 아편이 가장 환영을 받았다. 1757년 영국은 숙적 프랑스를 인도에서 몰아낸 후 인도에 대한 식민 통치를 개시하는데, 이와 함께 아편 전매권을 확보한다.

중국에서는 아편을 ‘아푸룽(阿芙蓉)’이라고 부르는데, 소량의 아편을 약품으로서 수입해 왔다. 하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되었다. 아편 문제로 인하여 국민 건강이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회 질서 또한 갈수록 문란해 졌다. 청조는 이러한 폐단을 알게 되었고, 옹정제(1723년~1735년) 시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지령

을 내렸다. 하지만, 거대한 아편 거래의 이익 때문에 밀수자들은 이러한 금지령을 무시했다. 그들은 세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 외에도 대담하게 링딩양(伶仃洋: 주장 항구 외곽) 부근에서 ‘거룻배(趸船)’을 이용해서 무장 밀수를 진행했다.

청조는 아편 문제로 골치를 앓았다. 아편 밀수량은 놀라운 속도로 급증했다. 18세기 초 중국은 연 컨테이너 2백개 수량의 아편을 수입하지만, 1820년에서 1824년의 5년 동안 연 컨테이너 7천8백 개, 아편전쟁 직전의 1838년에는 연 3만5천5백 개에 달했다. 아편전쟁 전의 40년 동안에 약 4십2만7천 개 컨테이너 분량의 아편이 중국으로 수입된 것이다.

1835년의 통계에 따르면, 아편을 흡입하는 중국인 인구는 2백만명을 넘어섰다. 따라서, 1821년에서 1840년까지 연 평균 오백만 이상의 은량이 중국으로부터 유출되고, 이 수치는 대략 청조 세수의 10%에 해당했다. 다시 말해서, 아편으로 인해서 중영(中英) 양국의 무역 상황은 역전되어, 중국은 거대한 무역 적자 부담을 지게 되었다.

대량의 자본 유출로 인해서 중국의 은 보유량이 감소되었다. 이로 인해서 은 가격은 폭등하고, 연관된 동전(銅錢)의 가격은 폭락했다. 1천동전으로 1은량을 살 수 있었는데, 순식간에 1천6백~2천동전이 있어야 1은량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중국의 주요 화폐는 동전이였다. 하지만, 청조는 무역이나 납세에 있어서 모두 은량을 사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장부상 가액 보다 1.6~2배가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결과가 되었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백성에게 돌아갔다. 또한, 동전 가격이 폭락하자 각 성에서는 납세 기간을 늘리거나 혹은 세금을 낮추는 수밖에 없었다. 이는 어느덧 청조 재정 압박의 원인이 되고, 청조 스스로도 이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호문소연(虎門銷煙), 임칙서(林則徐) 7전전승?

1836년을 전후해서, 청조는 아편 판매의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 두 개의 파로 나뉘었다. 이금파(弛禁派)는 “금지 법률이 엄격할 수록 폐해가 더욱 커지므로 이금 하니 못하다. 외국 상인들로 하여금 약재에 준해서 납세하도록 하고, 통관 이후에는 상품으로 취급하여 은량을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관직자와 사병 등은 아편 흡입을 금하지만, 민간의 아편 판매와 흡입은 논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즉 공직자는 아편을 금하지만, 민간은 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금파(嚴禁派)는 “금지 법률이 효과가 없는 것은 해관 관리들이 뇌물에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아편을 철저히 금지하기 위해서, 아편 흡입 도구를 숨긴 자는 사형에 처하고, 관리가 죄를 범한 경우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자손들은 과거를 볼 수 없도록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아편을 흡입한 모든 자를 엄벌에 처하고, 관리인 경우에는 본인을 사형에 처하는 외에도 그 자손들이 과거에 볼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금파(弛禁派)와 엄금파(嚴禁派)의 논쟁은 결국 엄금파의 승리로 귀결된다. 도광(道光)18년(1838년) 말에 가경제의 아들인 도광제는 새로운 아편 금지령을 반포한다. 그는 호광(호남성과 호북성을 포함하는 지역명) 총독 임칙서(林則徐)를 흠차(欽差) 대신으로 명하여 광동수사(해군)을 이끌고 아편을 금지하도록 한다.

흠차 대신은 명조(明朝)에 생긴 관직으로서 청조에 이르러 변경 수비의 중책을 맡았다. 엄금파(嚴禁派)의 수장이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임칙서는 복건성(福建省) 출신으로서 54세에 흠차 대신이 되었다. 그는 호광 총독 시절에 이미 아편 금지에 탁월한 공적을 세워서 그 명성이 자자했다.

임칙서는 북경에서 출발하여 다음 해 3월10일 광주에 도착한다. 그는 상대가 미처 대비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황제의 명을 완성하려고 했다. 3월16일 그는 광주에 있는 영국인들에게 통지하여 무조건적으로 아편을 내놓을 것과 영원히 아편을 중국으

로 들어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영국 상인들은 지연 전술을 펼친다. 때문에 임칙서는 3월24일, 3백50명의 외국 상인들을 포위하고 즉시 아편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당시 중국 주재 영국 상무총감인 찰스 엘리엇(Charles Elliot)은 3월28일 결국 항복하고 총 컨테이너 20283개, 중량 118000KG 상당의 아편을 내놓았다. 하지만, 외교적 수완이 좋았던 찰스는 계약을 짜서 각국 상인들로부터 아편을 구입하는데, 개인 명의가 아니라 대영제국 여왕폐하의 명의로 구입한다. 그 목적은 민간 차원의 상업 문제를 국가 차원으로 올려 놔서, 앞으로 있을 충돌 사태에 이용하려는 데 있었다.

한편, 임칙서는 도광제의 훈령을 받들어서 6월3일부터 광동성 호문(虎門) 해변에서 민간 물량을 포함한 아편을 소연(銷煙)하기 시작한다. 아편 소연은 6월25일이 되어서야 멈추는데, 이 과정을 역사는 ‘호문소연(虎門銷煙)’이라고 칭한다.

호문소연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있다. 임칙서는 약 2500 평방미터 정도 면적의 큰 구덩이 두 개를 파고, 구덩이 바닥에는 아편의 토양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돌을 깔도록 했다. 다음으로 아편을 바닷물이 가득한 구덩이에 모두 쏟아 넣어, 반나절 동안 물을 흡수하게 한 뒤에 석회분을 투입하여 물이 끓어 오르도록 하였다. 아편이 완전히 용해되자, 바닷물의 퇴조 시기에 맞추어 아편이 녹은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도록 했다. 여기서 임칙서가 아편의 토양 침투를 철저히 막은 이유는 사후에 토양에서 아편을 재추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영국 측에서는 찰스 엘리엇이 영국 정부에 호문소연의 대략적 내용을 보고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명령을 내려 거래를 정지하고 상인들을 홍콩 구룡에 정박한 배로 모았다. 이렇게 쌍방이 각각 앞으로 무슨 조치를 취할 지 알 수 없는 시점에 양측 관계를 더욱 더 악화시키는 사건 하나가 발생한다.

1839년 6월 20일 구룡 침사추이 촌민 임유희가 영국 수병에게 맞아 죽는다. 이 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임칙서와 찰스 엘리엇은 계속 다툼을 벌인다. 임칙서는 찰스 엘

리엇에게 범인 인도를 요구하지만, 찰스 엘리엇은 영사재판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 이에 대해서 임칙서는 즉시 상대의 주장을 일축하며, 청조와 영국 간에 정식 외교 관계가 없으므로 찰스 엘리엇에게 영사재판권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양측은 나날이 냉정을 잃어 가고, 장기간 누적된 불만과 분노는 결국 폭발한다. 9월에서 11월 동안에 찰스 엘리엇의 선단과 임칙서의 해군 사이에는 계속해서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연말이 되자 임칙서는 도광제에게 ‘7전전승’의 상소를 올린다.

멀리 북경에 있는 도광제는 상소를 보고 크게 기뻐한다. 그런데, 그는 경솔하게도 영국에 대한 항구 봉쇄를 명령한다. 당시 광주항은 강희제 이래로 유일하게 개방된 무역 통상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봉쇄령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중국의 쇄국을 선포하는 것과도 같았다. 물론 목적은 아편의 수입 금지에 있었지만, 이 결정은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무역을 갈망하는 영국 상인들이 적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이 아편 거래의 손해를 회복하고, ‘천조(天朝)’의 기를 누를 수 있는 길, 그리고 자유 통상이 가능한 거대 시장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 뿐이었다.

영웅의 우매한 행동

임칙서를 현대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마약 퇴치의 선봉에 선 그의 열정과 용기는 찬사를 보낼 만 하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주류 사학자와 초등학교 교과서 할 것 없이 모두 그를 민족의 영웅으로 본다. 이밖에도 국제적으로 1987년 12월 소집된 제42차 UN 총회에서 ‘호문소연’의 익일 즉 6월26일을 세계 마약 퇴치의 날(편저자: 대만의 금연일은 6월3일)로 정한다. 마약으로 골치를 앓는 UN이 기념일을 이렇게 정한 것은 임칙서의 마약 퇴치에 대한 용기와 신념을 모범으로 삼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별도로 저자는 임칙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다. 임칙서가 ‘호문소연’에서 하늘로 천천히 흩어지는 하얀 연기를 바라볼 때에, 과연 그는 현장에서 사라지는 아편 외에도 2백만명의 거대한 아편 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했을까? ‘호문소연’으로 말미암아 아편 거래에서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의 욕망이 과연 사라졌다고 생각했을까? 다시 말해서, 문제의 본질은 아편이 아니라 거대한 아편 시장을 방조하고 있는 부패한 청조란 점이다. 중국인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전쟁 때문에 더욱 큰 고난의 길을 예정하고 있었다.

저자는 역사의 영웅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지만, 임칙서의 ‘7전전승’의 상소를 보면 그의 정세 판단이 얼마나 순진한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찰스 엘리엇의 함대와 군대는 단지 영국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였기 때문에, 결코 이로써 영국 군대 전체의 역량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다.

또한, 광주만에서 발생한 소규모 전투에서 임칙서는 미국 상인으로부터 영국 포함이 이미 중국으로 접근한다는 소식을 알았는데도 이 정보를 소홀히 취급했다. 물론 광주의 수비 태세를 강화시켰다 하더라도, 흠차 대신으로서 임칙서는 광주 이외의 길고 협소한 해안선은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아야 했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임칙서는 ‘7전전승’의 보고를 통해서 도광제의 환심을 사고, 도광제가 경솔하게 항구 봉쇄령을 내리게 하는 이유가 된다. 이것은 임칙

서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 후 광주에서 도광제의 봉쇄령을 실제로 집행한 사람도 임칙서이다.

임칙서의 공헌: 명치유신(明治維新)

임칙서는 어차피 낮은 관제 속의 옛날 중국 문관일 뿐이다. 따라서 그에게서 시대를 초월하는 국제감각과 전략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아편전쟁의 패배로 충격을 받은 임칙서는 자신의 서양 문물에 대한 무지를 크게 반성한다. 그는 영국 머레이(Murray)의 ‘세계지리대전’을 번역하고 정리하여 ‘사주지(四州志)’를 완성한다.

도광 21년(1841년) 6월, 청조의 책임 추궁에 임칙서는 신강 이리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출발 전에 그는 ‘사주지’를 친구 위원에게 맡긴다. 위원은 ‘사주지’를 기초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나중에 200권이 넘는 방대한 ‘해국도지(海國圖志)’를 완성한다.

청조의 아편전쟁 패전은 일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일본이 청조의 실패를 따라하지 않기 위해서, 도쿠가와 막부 말기에 수 많은 지사들이 이 문제를 연구한다. 일본의 사상가 사쿠마 조산과 요시다 쇼인 등은 ‘해국도지’를 중시했다. 이것은 당시 정국과 그후 명치유신(明治維新)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호문소연’ 사건과 광주만에서 발생한 소규모 전투는 오래지 않아 영국으로 알려졌고, 영국 국회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보수당 윌리엄 그래드스톤(William Ewart Gladstone)은 역사상 유래가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편 전쟁을 비판하지만, 빅토리아 여왕의 강력한 리더쉽 아래에서, 국회는 1840년 271표 대 262표의 근소한 차이로 대중국 군사행동을 통과시킨다.

이윽고 군함 16척, 무장 증기선 4척, 군수함 28척, 대포 540문 그리고 사병 2만명으로 구성된 동방 원정군이 영국 본토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및 인도에서 출발하여 중국 광주로 향한다.

제1장 전쟁보다 더 깊은 상처

불평등 조약 중의 ‘평등’: 열강의 중국 분할

239년 지난 골동품 대포로 영국에 대항하다

1840년 6월 21일 영국 함대가 마카오 근해로 도착했다. 영국군 총사령관은 조지 엘리엇(George Elliot, 찰스 엘리엇의 사촌 형이라는 설이 있음), 부총사령관은 주중 상무총감이던 찰리 엘리엇이 맡았다.

영국군은 잠시 주강 항구를 봉쇄하지만, 임칙서가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북쪽으로 향한다. 엘리엇으로서는 임칙서가 증오스런 적장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칙서와의 승부가 아니라 아편 손실의 배상과 ‘천조(天朝)’를 압박해서 광대한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7월 5일 영국군은 절강성 주산(舟山)의 전략 요지인 정해(定海)를 공격한다. 전략 요지라고는 하지만, 청군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적군의 해상 공격에, 포성이 들리자마자 놀라서 도망친다. 영국군이 유일하게 두려워한 것은 청군의 매복 공격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상륙하는데, 마침 청군의 대포를 발견하고서 소리내어 웃는다.

청군의 대포에는 ‘Richard Philip, 1601’이라는 영문 표기가 새겨져 있었다. 즉, 239년 전 리차드 필립이라는 자가 제조한 대포라는 의미였다. 청군이 아직도 골동품 대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영국군은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영국군은 정해를 무단 강점하고 기세좋게 북진한다.

방어군은 놀라서 도망치고 적군은 계속해서 진군하는 이 시점에 한 인물이 텅빈 관아에서 북쪽을 향해 걸어간다. 그는 바로 정해 지현(知縣, 관직명)인 요회상(姚懷祥)이었다. 그는 적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자, 성의 북쪽에 있는 만공담(萬公潭)에 투신하여 조국에 충성을 다한다. 만공담은 이미 멸망한 명조(明朝) 말기 왕실과 그 충신들의 매장지였다. 요회상은 아편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한 첫 번째 문관이 되었다.

변덕스런 도광제, 쓸모 없는 흠차 대신을 임명하다

8월 11일 영국군은 천진(天津) 대구(大沽) 항구까지 진격했다. 대구 항구는 천진 동남쪽 60킬로미터에 위치한, 해하(海河)와 보해(渤海)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예로부터 북경과 천진의 입구가 되었다. 천진은 북경에서 약 150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약 2시간 거리에 있다. 영국군이 코 앞까지 도착하자, 도광제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결국 아편 금지의 결단은 흔들리고 만다.

사족을 달면, 이때 도광제의 세수는 51세, 즉위한지 20년이 되는 해가 된다. 궁핍한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광제는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후궁들에게도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한다. 그런데 그의 단점은 정서 불안과 위기 대응 능력에 있었다. 도광제의 유아 시절 궁궐 생활로부터 형성된 변덕스런 성격은 특히 아편전쟁 시기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적군이 코 앞까지 오자 갑자기 타협적으로 변했다가, 적군이 사라지자 또다시 원래의 강경한 태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도광제의 이러한 변덕스런 성격은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아서, 청조의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변덕스런 도광제는 적군이 수도까지 진격하자 바로 이금파(弛禁派)이자 종실 신분인 직례(直隸: 현재의 하북성 일대) 총독 기선(琦善)에게 명을 내려 영국과 강화 협상하도록 한다. 영국이 자유통상과 도서 할양 조건을 제시하자 도광제는 크게 놀란다.

기선은 도광제에게 영국군의 위력적인 대포 때문에 결코 승산이 없다고 권유한다. 이에 도광제는 8월 20일 통상을 허락하고 기타 조건은 영국군이 광주에서 퇴각한 이후에 다시 논하기로 결정을 내린다. 뿐만 아니라, 영국인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임칙서의 관직을 박탈하고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때 도광제가 간절히 속으로 바라는 것은 영국군이 하루라도 빨리 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도광제가 기타 조건을 다시 논한다는 말은 현재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임시변통에 불과했다. 그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영국군의 철수가 확정된 후 도광제는 크게 기뻐서 다음과 같이 기선을 칭찬한다. “기선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서 적을 철수시켰다. 이점만 보더라도 임칙서는 한참 따라올 수 없다.” 사후에 도광제는 기선을 흠차대신으로 임명하여 임칙서 대신에 양광(광동성과 광시성 두 성을 포함하는 지명) 총독을 맡도록 한다. 또한 임칙서는 정식으로 면직되어 다음 해 6월 신강 이리로 유배되었다.

기선이 광주에 도착한 시기는 11월 말이었다. 그는 부임하면서 영국인에게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임칙서가 모집한 민병을 해산하고 또한 그가 건설한 방어 시설도 파괴한다. 당시 조지 엘리엇은 병으로 귀국했기 때문에 영국을 대표하여 협상한 자는 찰스 엘리엇(Charles Elliot)이다. 찰스 엘리엇은 단도직입적으로 40개 조항의 조건을 요구하는데, 그 내용은 아편 손해 배상, 통상항구 개방, 홍콩 할양, 전쟁 군비 배상, 관세 재설계 그리고 영국의 치외법권 등을 포함했다.

이러한 조건에 기선은 어쩔 줄 몰랐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도광제를 대리하여 협상하지만, 도광제는 “기회를 봐서 적당히 하라”라는 간단한 말을 했을 뿐, 그에게 다른 결정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모호한 표현으로 시간을 버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느 한 쪽이 양보하길 기다리는 수밖에...’ 양 쪽 사이에 끼어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기선은 아마도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협상의 조건이 북경으로 전해지자 도광제는 아니나다를까 크게 분노한다.

대각(大角) 포대와 사각(沙角) 포대(천비穿鼻 포대)의 함락과 ‘천비(穿鼻) 조약’의 내용은 신속하게 도광제에게 전해졌다. 도광제는 분노하여 1월 27일 결국 영국에 전쟁을 선언한다. 도광제는 기선에게 홍콩 할양의 책임을 물어 사형까지 내렸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 도광제 자신의 변덕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흠차 대신 두 명에게 돌렸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4월 말 엘리엇을 물러나게 했을 뿐 아니라 천비조약을 승인하지도 않는다. 일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엘리엇이 제안한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임칙서, 엘리엇 그리고 기선 등 아편전쟁 초기의 주연 3인방은 모두 자국 정부의 문책 하에 무대에서 사라진다.

이때 중영(中英) 양국은 모두 공식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상황이 되었다. 청조는 각지에서 17000명을 징병하여 광주에 집결시키고, 지휘를 상남기(팔기의 하나) 종실인 이산(奕山)과 호남제독 양방(楊芳)에 맡긴다. 영국 또한 쉬지 않고 2월 26일 18척의 군함을 이끌고 호문 포대를 선공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호문을 죽음으로써 사수한 것은 광동수사제독 관천배(關天陪)와 400명의 부하들이었다. 양측의 격렬한 공방전은 다음날 오후까지 이어졌다. 결국, 원군도 없고 또한 중상까지 입은 관천배는 남은 화약으로 적군과 함께 자폭한다. 이 전투에서 감동한 영국군은 군함에서 기적을 울려 관천배와 그 부하 400인을 애도한다.

호문이 함락되자 영국함대에게는 내륙 뱃길로 거침 없이 진군을 시작할 길이 열렸다. 다시 말하면, 광주의 대문이 활짝 뚫린 것이다. 이때 광주성에서는 양방과 이산의 군대가 진주하고 있었지만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군사는 적군의 몇 배가 되는 많은 수였지만, 징병된 사병들은 모두 아편에 중독된 아편 중독자였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영국군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5월 22일, 영국군은 전쟁 중 9명의 병사를 잃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청군을 대파한 것은 물론, 광주성 전체를 전쟁의 혼란 속으로 몰아 넣었다.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이산은 영국군에게 항복하고 ‘광주강화조약(廣州和約)’을 체결한다. 영국군은 점령한 광주성을 돌려주는 대가로 6백만 은원과 군비 30만 은원을 배상받고 나서 득의양양하게 호문(虎門) 밖으로 퇴각한다. 그 배상금은 물론 광주성 백성들을 착취해서 마련한 것이었다.

도광제는 광주성이 이미 함락된 사실을 모른 채, 이산이 영국군을 격퇴했다는 거짓 소식에 기뻐한다. 이산의 장난질에 농락당하고, 영국군의 약탈에 분노한 것은 다른 아닌 광주성 백성들이었다. 5월 29일 광주성 백성들은 광주성 북쪽 삼원리에 집결하여 군대를 결성한다. ‘평영단(平英團)’이라는 이름의 군대는 영국군과 31일까지 대치하게 되는데, 참여자가 만여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산 등 정부 관료들은 백성들의 의거 때문에 거금을 들여 애써 만든 강화가 깨질까 두려워 한다. 그들은 영국군에게 사과하고, 광주성 백성들의 평영단(平英團)을 강제로 해산했다. 이 사건을 역사는 ‘삼원리저항사건(三元里抗英事件)’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민중이 외세에 저항한 사건이었다.

전쟁보다 더 깊은 상처

‘광주강화조약(廣州和約)’으로 찾아 온 평화는 금방 깨진다. 4월 말 찰스 엘리엇(Charles Elliot)이 런던으로 소환된 후에 영국 정부는 헨리 포팅어(Henry Pottinger)를 파견해서 청조와 협상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영국이 청조를 굴복시키기 위해 준비한 치명적인 일격의 일환이었다.

1841년 8월 영국 함대는 또다시 북쪽으로 진군한다. 같은 달 26일 하문(廈門)이 함락되고, 10월에는 절강(浙江)성의 정해(定海), 진해(鎮海)와 영파(寧波) 등지가 차례로 공략 당한다.

영국군은 정해(定海)를 두 번째로 공략하는데, 이때는 첫 번째와는 다르게 완강한 저항에 부딪힌다. 기선과 찰스 엘리엇이 ‘천비조약’을 체결한 후 영국군은 잠시 정해에서 물러나지만, 청조는 영국군의 태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따라서, 절강성 군사를 맡고 있던 팔기군 대신 유겸(裕謙)은 일년 전 함락된 경험을 교훈 삼아서 5천 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정해를 사수하도록 한 것이다.

양측의 공방전은 6일간 계속되었다. 전투에서 영국 측은 4백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서, 청조(清朝)는 3명의 총병(總兵: 정2품 관직으로서 제독 바로 아래의 무관)을 포함하여 전군이 몰살되었다. 유겸은 진해 방어에 실패한 후,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성과 함께 죽고 산다는 맹세를 실행에 옮긴다.

절강3진(浙江三鎮)이 함락되자 자금성 또한 혼란에 빠진다. 10월 18일 도광제는 황망히 두 번째 선전 포고를 내리고, 종실 신분의 내각대학사 혁경(奕經)을 양위장군(揚威將軍)으로 임명한다. 혁경은 3만여명의 관군을 지휘하여 절강성으로 향한다.

그러나 승리의 여신은 여전히 청조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듬 해 3월 10일 혁경의 군대는 전투를 시작하자마자 모두 몰살당하고, 이 사건으로 도광제의 천조(天朝) 관

넘은 타격을 받기에 이르렀다. 도망치기에 급급한 군대를 질책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는 어쩔 수 없이 종실 대신 기영(耆英)을 흠차 대신으로 삼아서 강화 협상을 진행시킨다.

영국은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기영(耆英)이 아무리 저자세를 취해도 헨리 포팅어는 그동안 청조의 반복된 태도에 미루어 더 강경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말만 돌려 보낸다.

6월 초 영국군은 인도 지원군을 얻어서 2만명의 진용을 갖추었다. 영국군은 기세를 살려서 장강의 입구인 오송구(吳淞口)를 침공하고 보산(寶山)과 상해(上海)를 점령한다. 7월이 되자 영국군은 진강(鎮江)까지 진격한다.

이미 결정된 승부

진강(鎮江)은 강소성(江蘇省) 중부에 위치한 장강(長江) 하류의 남쪽 강안(江岸)이다. 진강(鎮江)은 예로부터 장강과 대운하가 교차하는 항구 도시로서 크게 번영해 왔다. 영국군이 진강(鎮江)을 장악한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이 남쪽의 곡식을 북쪽으로 운송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이다. 화남(華南) 지역은 비옥한 땅에 곡식이 풍부하여, 이 곡식을 식량이 부족한 화북(華北) 지역에 공급한다. 만약, 이 식량 공급로가 끊기면 북경을 포함한 화북지역 전체가 식량난을 겪게 된다. 따라서 진강(鎮江)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전은 전체 승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전투가 된다.

7월 17일 영국군은 진강(鎮江)을 맹렬히 공격한다. 영국군은 빠른 속도로 상륙에 성공하지만, 청군은 이미 성내에서 진용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영국군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한편, 이 전투에서 청군의 최고 지휘관은 만주 팔기군 부제독 해령(海齡)이다. 그는 천육백명의 몽고 팔기군을 성내 길거리와 지붕 등에 매복시키고 적군과 근접전을 펼쳤다. 영국군은 병력과 무기 모두 청군보다 우월했지만, 3일이 지나야 간신히 진강(鎮江)을 접수한다. 21일 기진맥진한 해령은 바다에 투신하고, 그의 부하들은 전사하거나 자살을 택한다.

독일의 철학자 엥겔스는 ‘영국의 중국 신원정(英人對華的新遠征)’에서 이 전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만약 침략자들이 도처에서 진강(鎮江) 전투와 같은 정도의 저항을 받았다면, 그들은 결코 남경(南京)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엥겔스는 책에서 진강을 죽음으로 사수한 청군에 찬양을 금치 못한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진강 전투 또한 중국의 복잡하고 심각한 역사적 문제를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양측이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해령은 성내에서 방어하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와 숙청을 감행한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백성들이 감옥에 투옥되거나 생명까지 잃는다. 이러한 행위는 청군이 백성과 영국군에게 공동의 적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백성들에게 청조(淸朝)의 만주족(滿州族) 통치에 대한 새로운 원한을 품게 하는 것이다. 일설에 따르면, 많은 백성들이 영국군을 도와 청군을 공격하고, 전쟁의 혼란을 틈타 감옥에서 친인척과 지인을 구출했다고 한다. 이러한 백성들을 또 어떻게 비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중국의 반식민지화

진강 함락, 도광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다

“영국의 모든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

1842년 8월 29일 청조 협상 대표 기영(耆英)은 장강에 정박한 영국 군함 콘월리스(HMS Cornwallis)호로 향한다. 그는 남경조약(南京條約)을 체결하고, 영국의 모든 요구 사항을 수용한다. 남경조약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5개항 개항: 광주, 복주, 하문, 영포, 상해 5개 항구를 통상항으로 개방, 영국 영사관 설치, 영국인 및 그 가족에게 거주권 부여
2. 홍콩 할양: 사실상 1년 전인 1월 26일 발효
3. 배상: 청조는 4년에 걸쳐서 영국에 2천1백만 은전을 배상할 것(광주를 돌려주는 대가 6백만 은전을 포함하지 않는다), 배상 완료 전에는 영국군이 절강성 주산에 주둔할 수 있을 것
4. 관세 협정: 수입 관세는 반드시 영국과 협상한 후에 부과할 것(이 조항은 청조의 관세 자주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남경조약을 끝으로 2년 2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아편전쟁이 막을 내린다. 그러나 조약을 체결한 후에도 영국은 그 실행 방법을 두고서 여전히 청조와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벌인다. 이듬해 10월 ‘호문조약(虎門條約)’을 더해서, 영국은 영사 재판권, 최혜국 대우, 통상항 조차권 등 3개 조항의 특권을 추가적으로 획득한다. 그중에서도 영사 재판권은 중국의 사법권에 대한 모욕이었다.

최혜국 대우란, 중국이 만약 제3국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경우에, 영국에 대해서도 그와 동등한 내용으로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항은 그후 열강들에게 선례

가 된다. 즉, 열강들은 서로 목시적으로 동 조항을 원용하여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이권을 수탈한 것이다. 한편, 조차권을 통해서 영국인들은 통상항에서 토지를 조차하여 건물을 지어 조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해서 중국 관할에서 완전히 벗어난 영지(領地), 즉 국가 속 타국(國中國)이 생겨난다.

추가 조항이 더해진 호문조약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입 관세는 중국이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5%로 일률적으로 내려간다. 이것은 중국에서 원료를 사서 완성품을 파는 영국에게는 엄청난 이익이 되지만, 반대로 청조는 이 조항들 때문에 정치, 경제 또는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영국의 간섭을 받게 된다. 중국은 결국 주권을 상실한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한다.

난징조약, 상해가 태어나다

미국과 프랑스는 영국이 전쟁을 통해서 이권을 침탈하는 것을 보면서 기회를 노린다. 그들은 1844년 7월과 10월 사이에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하여 중국과 망하조약(望廈條約) 및 황포조약(黃埔條約)을 체결한다. 조약의 내용은 남경조약과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개항 이외에도 교회, 병원, 묘지 등을 조약 내용으로 삽입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약들은 중국 이권 침탈의 선도 주자인 영국 마저도 모자람을 느낄 정도였다.

다음으로는 도광제가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한 서유럽 국가들이 몰려들어 중국을 수탈하기 시작한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벨기에, 프러시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등의 나라들이 모두 청조와 조약을 체결하여 영국, 미국 및 프랑스와 동등한 대우를 얻어낸다.

기영(耆英)은 국제 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한참 뒤떨어진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는 청조를 대표해서 서구 국가들과 협상을 하면서, 벽안의 서양인들에게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체결된 조약들은 그가 각국 대사를 만나서 제대로 협상한 결과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열강이 원하는 것을 방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이르면, 중국은 이미 삼궤구고(三跪九叩)의 천조(天朝)의 신분이 아니라 열강의 밥상에 올려진 한낱 고깃덩어리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었다. 즉, 청조는 열강에 의하여 많은 이권을 침탈 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인도 같은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일지라도 혼자 힘으로 이권에 불을 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서구 제국 모두를 막아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황제가 통치하는 전제국가인데, 일련의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서 반식민지 국가로 전락한다. 아쉬운 것은 극소수 지식인을 제외하고 당시 청조에는 계몽된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후 더욱더 심각한 재난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1장의 끝으로 저자의 고향 상해를 살펴보자. 5개 통상항이 개항되자 그중에서 하문, 복주, 영파 등지는 지리적 한계로 인해서 기대만큼 크게 발달하지 못한다. 다만, 장강의 입구에 위치한 상해는 빠른 속도로 국제적인 대도시로 성장한다. 그 이유를 보자면, 상해가 당시 주력 수출품 비단과 차(茶)의 산지와 가까울 뿐 아니라 또한 중국의 남과 북을 수로로 연결하는 천혜의 입지에 위치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처음에 광주성을 근거지로 했던 유럽과 미국 상인들은 경쟁적으로 상해로 와서 은행을 설립한다. 19세기에 이르자 상해는 드디어 광주를 추월해서 중국 최대의 무역항으로 성장한다.

개항 후 오래지 않아서 열강은 기회가 되는 대로 황포강 서안에 조계를 설치하고 각종 명분을 들어서 그 범위를 확장한다. 조계지에는 주도로가 하나 있다. 그 도로의 이름은 상해의 개항을 산파한 남경조약(南京條約)에 유래한다.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까지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그 도로는 다름 아닌 상해에서 가장 변화한 도로 중의 하나인 남경로(南京路)이다.

제2장 태평천국(太平天國)에는 공자가 없다

태평천국의 난은, 중공이 주장하듯 최초의 농민혁명이 아니라, 신흥종교가 전통 문화를 침략한 것이다

홍수전(洪秀全): 내가 말하노니, 천국이 가까웠다

아편전쟁의 패전으로 중국은 건륭제 말기 이래 잠재되었던 사회문제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른다. 이전에는 백성들이 생활이 힘들더라도 스스로를 천조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외적의 침략과 정부의 무능력을 지켜보면서, 백성들의 천조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붕괴된다. 민중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반정부 운동의 에너지로 축적되는데, 이러한 에너지가 태평천국의 난(太平天國之亂, 1851~1864)을 촉발했다. 동시에 제2차 아편전쟁(第二次鴉片戰爭)이 발발하자 내우외환 속에서 백성들은 나라로 떨어진다.

태평천국(太平天國)의 창시자는 자칭 ‘천왕(天王)’ 홍수전(洪秀全)이었다. 그는 광동성 화현(花縣)의 농가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유가 경전을 섭렵해서 주변에서는 그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30세까지 몇 차례 과거 시험을 모두 낙방한 홍수전은 크게 충격을 받아 심한 병이 든다.

홍수전은 꿈 속에서 흑의를 입은 노인을 보았다. 흑의의 노인은 홍수전에게 한 자루 검을 건네며,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인간세계에 가서 사악한 세력을 처단할 것을 명한다. 꿈에서 깨어난 홍수전은 꿈 속의 노인이 최근 읽었던 ‘권세양언(勸世良言)’에

등장하는 상제와 똑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때부터 홍수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는 사서오경을 모두 내던지고 스스로 세례를 내리더니, 동향 친구 풍운산(馮雲山)과 함께 ‘배상제회(拜上帝會)’를 조직한다. 두 사람은 광동성과 광서성에서 포교 활동을 전개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결국 옥황상제가 명한 ‘천명(天命)’을 수행하기에 이른다.

1850년 광서성에서 가뭄과 병충해 등의 재난이 연속해서 발생하자 백성은 도탄에 빠진다. 홍수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해 가을에 2만명의 신도를 집결시켜서 포위하고 있던 청군을 격퇴하고, 이듬해 상제를 모시는 의식을 거행하여 태평천국(太平天國)을 선포한다.

태평군(太平軍)은 비록 짧은 기간 동안에 광서성, 호남성을 돌아가며 전쟁을 치루지만, 봉기 4년인 1853년 3월 19일 일만척의 배와 50만 군대를 조직하여 남경 공략에 성공한다. 홍수전은 태평천국의 수도를 남경으로 정하고, 천경(天京)이라 개명한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북경(北京)의 청조(淸朝)와 남경(南京)의 태평천국(太平天國)으로 양분된다.

태평천국의 이중적 도덕률

태평천국의 건국이념은 모든 사람이 토지, 음식 그리고 돈을 함께 공유하여 세상에서 불평등, 추위와 배고픔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사실 중국의 역대 농민 봉기에서 부패에 신음하는 민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항상 이용되던 구호였다.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홍수전은 사유재산제를 폐기하고 여자의 매춘(賣春)과 전족(纏足)을 금지한다. 더 나아가서 남경에 남녀를 구분하는 진영(陣營)을 운영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태평천국은 최후의 승리와 사병의 전투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전체 사병을 남녀를 구분하여 거주하게 했다고 한다.

만약에 이러한 규정이 전시(戰時)에 한정되었다면 이해가 갈 수도 있다. 혹은 홍수전이 스스로 모범을 보였다면 더욱 그럴듯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홍수전을 비롯한 태평천국의 상층부는 남녀가 동거할 뿐 아니라 처첩까지 거느리는 음란한 생활을 했다. 홍수전 본인만 보더라도, 애초 남경에 입성할 때에 짚신을 신고 걸어다니던 생활이, 점차 화려한 궁전 생활로 변해간다. 이제 궁전 생활을 할 무렵에는 무려 64명이 저야 하는 대형 가마로 행차하기에 이른다.

홍수전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역대 황제를 모방해서 자신을 만세(萬歲)라고 스스로 칭할 뿐 아니라, 동왕(東王) 이하의 제후들에게 구천세(九千歲)에서 오천세(五千歲)까지의 칭호를 하사한다. 이쯤 되면, 홍수전은 이미 상제의 사자도 아니며, 혁명가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기껏해야 청조를 전복시키려는 새로운 전제군주에 불과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청조와 태평천국 양측간의 전쟁은 갈수록 격렬해 졌다. 1853년 5월 태평천국은 기세 좋게 북벌(北伐)부대와 서정(西征)부대를 파견한다. 북벌은 청조를 전복하기 위한 것이고, 서정은 태평천국의 수도 남경의 수비에 중요한 안휘성, 강서성, 호북성 그리고 호남성 등의 4성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벌부대는 주로 보병으로 구성되었고, 2만명 이상의 규모였다. 그러나, 그들은 단독으로 적진에 너무 깊숙히 들어간 나머지, 하북성 평원 지역에서 청군의 유인책에 걸려들어 몽고 기병 군단에게 몰살당하고 만다. 때는 북벌이 진행된 지 2년만의 일이다. 북벌부대와 비교하면 서정부대는 운이 좋았다. 그들은 2년 만에 계획대로 안휘성 안경, 강서성 구강, 호북성 무창 그리고 호남성 악주 등지를 차례로 점령한다.

이렇게 되자 상황이 고착되기 시작한다. 즉 태평천국의 입장에서는 북벌을 진행할 무력이 없었고, 청조 입장에서는 비록 장강 양안에江北大營(강북대영)과江南大營(강남대영)을 설치하여 남경을 봉쇄하지만 장강 중류 지역의 통로가 있어서 이 또한 치명타가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태평천국과 청조가 천하를 양분하는 형국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때 태평천국의 내부에는 부패 문제가 머리를 들기 시작한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홍수전이 바로 내 아들이다”

당시 태평천국의 군 사무는 모두 동왕 양수청(楊秀淸)이 천왕 홍수전을 대리해서 집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홍수전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때때로 양수청이 야훼의 현신을 가장하여 “홍수전이 바로 내 아들이다”라고 신도들 앞에서 말하곤 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둘 사이의 관계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다.

1856년 6월 태평군은 청조의 강남대영을 대파한다. 즉, 3년간 지속되던 포위 상태가 해제된 것이다. 그러자 태평천국의 전군이 모두 승리의 분위기에 취해간다. 이때 양수청은 그 승리를 모두 자신의 공로라고 여기고, 홍수전이 자신을 만세(萬歲)에 봉하도록 강제한다. 홍수전은 표면상 양수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만, 속으로는 이를 협박으로 간주한다. 이때 홍수전은 내부적으로 단합해서 청조를 전복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는데 더 골몰한 것이다.

9월 1일 홍수전은 결국 북왕(北王) 위창휘(韋昌輝)에게 양수청을 제거하라는 밀명을 내린다. 남경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고, 양수청은 참혹하게 멸문지화를 당한다. 사람들은 양수청을 따르던 2만명의 병사들이 혼란 속에서 다름아닌 아군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여긴다.

악화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홍수전은 위창휘 일가를 희생양으로 삼지만, 백성들의 신뢰와 인심은 회복할 길이 없었다. 이후 태평천국은 어렵게 접수한 무창, 구강 및 안경 등지를 차례로 잃게 된다. 결국 태평천국의 수도 남경은 고립되어 외국 용병으로 구성된 청군에게 포위당한다.

1864년 6월 1일, 포위가 수 개월 지속된 끝에 남경은 드디어 곡식이 끊긴다. 홍수전은 하늘의 상제에게 병력을 빌린다는 이유로 음독 자살하고 마는데, 그가 향년 51세의 일이다. 7월 17일, 청군의 공격으로 남경이 함락되고,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충왕(忠王) 이수성(李秀成)마저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진다. 태평천국은 이렇게 종말을 고했다.

신흥 종교와 전통 문화의 충돌

태평천국의 난은 중국의 18개 성을 휩쓸면서, 14년간 지속되며, 청조의 통치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한편, 태평천국의 미신과 폭정 그리고 그 부정적 영향은 청조보다 작지 않았다. 긴 시간 동란을 겪으면서 남경의 주요 전쟁터가 된 안휘성은 그 경제와 문화가 파멸적 수준으로 파괴되었다. 안휘성 도처에 백골이 텅골고, 그 풍요롭던 전답은 지옥으로 변했다.

1950년대 이래로 중국은 정치적 고려에서 태평천국의 난을 농민 혁명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태평천국의 부패상에 대한 반성이 시작되었다. 태평천국의 난이 실패한 것은 지도자의 권력욕에 더하여, 농민봉기에서 자주 보이는 짧은 승리 후 급속히 발생하는 부패 때문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태평천국의 멸망을 촉진한 것은 바로 홍수전의 사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신도를 모으기 위해서 홍수전은 중국 사상계에서 영도적 지위에 있는 유교 경전을 요서(妖書)로 폄하한다. 태평군은 가는 곳마다 공자의 사원을 불지르는데, 이는 중국의 당대 지식인들이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증국번(曾國藩)과 그 제자인 이홍장(李鴻章)이 바로 그러한 홍수전의 반문명 행위에 대항한 대표적 인물들이었다.

증국번은 송대의 사상가인 정이(程頤)와 주희(朱熹)의 신봉자였다. 달리 말하면, 그는 비록 일개 유가 서생에 불과했지만, 자신이 신봉하는 가치가 별안간 이유없이 다른 종교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되자, 군사 저항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일단 자신의 가치가 유린되자, 문약한 서생에 불과했던 그들은 맹렬한 투사가 되었다. 증국번은 호남민병인 향군(湘軍)을 조직하고, 이홍장은 안휘민병인 회군(淮軍)을 결성한다. 두 서생이 조직한 향군과 회군은 혈연과 학연 및 지연이 얽힌 민병이었다. 이 민병이 바로 태평천국을 포위하고 궤멸시킨 주역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태평천국과 민병간의 대결은 청조의 존망을 결정한 사건임과 동시에 신흥 종교와 전통 문화간의 충돌이었다고 생각한다.

제3장 영프 연합군, 강도로 돌변하다

청조는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고
'자강운동(自強運動)'을 전개한다.

일을 피하는 청조, 일을 만드는 영국

태평천국이 무장봉기할 무렵인 1851년, 도광제는 내우외환 속에서 결국 붕어한다. 도광제 재위 30년, 향년 69세의 일이다. 넷째 아들인 혁저(奕訢)가 황위의 계승자로 간택되었다. 그는 당시 연호(年號)에 따라서 함풍제(咸豐帝)로 불린다. 함풍제가 즉위할 때는 막 20세, 같은 해 봉기된 태평천국의 난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는 선친 보다도 더욱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함풍제 또한 즉위한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려 했다. 그러나 부전자전이 라는 말처럼, 함풍제는 도광제 못지 않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젊은 황제였다. 함풍제는 과도하게 천조의 체면에 집착하게 되고, 그럴 수록 중국은 더 큰 치욕을 겪게 되었다.

아편전쟁 종결 후에 영국은 청조에게 5개 통상항을 개항할 것을 강요한다. 그때 영국인들은 중국인들이 면 모자 하나씩만 사도 영국의 모든 공장들이 공급을 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인들의 기대와 달리, 중국은 자급자족 사회였기 때문에 영중간에 체결된 조약 하나로 많은 것이 변하지는 않았다. 영국 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게 된 것은 일단 긍정적인 일이지만,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바로 쓰레기 산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마음이 급해진 영국 상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약을 자신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854년 11월 영국인들은 남경조약이 체결된지 12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서 청조에게 조약의 개정을 요구한다. 주요한 내용은 통상항을 늘리는 것과 각국 대사들이 북경에 주재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 대사는 아편전쟁을 교훈 삼아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존엄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청조는 일을 만드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수고스럽게 협상하려 하지 않았다.

다시 23개월이 지나자, 애로호(亞羅號)사건이 발생한다. 아라호는 오래 된 화물선으로서, 원래 홍콩 출신 중국인이 선주였지만, 홍콩 할양 이후에는 영국 식민국에 등기되었다. 1856년 10월 8일, 주장에 정박된 애로호는 광동수사(廣東水師)의 검사를 받게 된다. 등기 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애로호는 억류되었고, 중국인 선원 13명 또한 체포되었다. 검사 진행 과정에서, 광동수사는 선상에 있던 영국 국기를 내리는데, 이것이 화근이 된다.

주광주 영사 해리 파크스(Sir Harry Smith Parkes)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양광총독(兩廣總督) 엽명침(葉名琛)에게 책임을 묻는다. 즉, 애로호를 풀어줄 것과 영국 국기를 모욕한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다.

엽명침은 “선원도 중국인이고 배 또한 중국 배인데, 국기를 내리는 것이 잘못 됐는가”라고 반문하며, 선원들은 석방하지만, 사과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오만한 태도는 바로 영국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기회였다. 이렇게 해서, 잔혹한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된다.

진퇴양난의 육불(六不)총독

영국은 국기 모독을 이유로 함대를 파견하고, 프랑스는 천주교 선교사 아우구스트 샵딜레느(Auguste Chapdelaine)가 광동성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이유로 영국과 함께 출병한다. 1857년 12월 29일, 5500명으로 구성된 영프 연합군이 광주성을 공격하고, 엽명침을 체포한다.

엽명침은 나중에 인도의 감옥에서 단식 끝에 사망한다. 그는 육불(六不)총독이라고 불리며 비웃음을 사는데, 육불이란 적을 상대함에 있어서 싸우지 않고(不戰), 강화하지 않으며(不和), 지키지도 않고(不守), 도망가지도 않으며(不走), 항복하지도 않고(不降), 또 자살하지도 않는(不死)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소에 타들어간 그의 심정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엽명침에게는 강화할 수 있는 실권도 없었고 전쟁할 수 있는 무력 또는 수비할 수 있는 군사력도 없었다. 또한, 자존심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배신자처럼 항복할 수도 없는 그였다. 그에게 남은 것은 자살하는 길 하나 밖에 없었다. 엽명침은 소극적 저항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가 보여준 한계는 청조의 우매한 대외정책의 축소판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황제없이 체결된 조약

다음 해 1월, 영프 연합군이 북진한다. 5월에 이미 대구(大沽)를 점령하고 천진(天津)에 근접하는데, 그 공격 루트가 1840년의 아편전쟁과 거의 흡사했다. 그에 대한 청조의 대응 또한 과거의 복사판이었다.

청조는 대학사(大學士) 계량(桂良)을 천진으로 파견한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푸티아틴(E.V. Putiatine)과 먼저 ‘중러천진조약’을 체결하는데, 이를 레버리지로 푸티아틴을 중개자로 고용한다. 이렇게 러시아가 입회한 상황에서 미국, 영국 및 프랑스 각국과 개별적으로 ‘천진조약’을 체결한다. ‘천진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경에 공사가 주재할 것
2. 영국인과 프랑스인이 중국 국내를 여행하고 선교할 수 있을 것
3. 통상항을 개방할 것: 영구(營口), 연태(煙台), 대남(台南) 등
4. 각국 상업 선박이 장강에 자유로이 항행할 수 있을 것
5. 영국에 4백만량, 프랑스에 2백만량의 은전을 배상할 것

조약 당사국은 다음 해 북경에서 조약 갱신을 약속한다. 청조는 어렵게 전쟁에서 벗어나는데, 함풍제의 속셈은 사실 영프 연합군이 철수하면 조약을 폐기하는 것이었다. 그는 천조가 하찮은 소국들에게 대등한 대우를 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따라서, 함풍제는 공사가 북경에 주재한다는 조항을 부정한다 (편저자: 서구 국가의 관례상 함풍제는 반드시 각국 공사를 접견해야 하는데, 함풍제는 이를 원하지 않았다). 함풍제는 이 조항을 폐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관세면제조항’을 내세워 영프와 협상하려 한다.

조약은 안중에 없는 함풍제

시간은 원한다고 기다려 주지 않는 법이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859년 6월, 조약을 갱신할 때가 찾아 왔다. 영국과 프랑스 공사들이 21척의 배와 2천명의 사병을 이끌고 북경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은 대구(大沽)에서 예상 외의 제지를 당한다. 조약에 따르면, 함풍제는 반드시 공사를 접견해야 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자 황제는 내키는대로 접견하고 싶지 않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함풍제 주변 관료들이 강경한 대응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리기 시작한다. 청조는 몽고 명장 승격림심(僧格林沁)을 대구로 파견하여 오랑캐를 격퇴하도록 명한다.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대다수가 이때 영프 연합 함대가 침략 목적으로 북진했다고 단언하는데, 이것은 역사를 곡해하는 것이다. 2년 후 향군(湘軍)의 수장이자 개방파였던 증국번은 수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한탄한다. “함풍 9년, 서양인들이 조약의 갱신을 위해서 왔다. 그런데, 승친왕(僧親王)은 그들을 유인하여 침몰시키니 천하가 통쾌해 한다. 이듬 해 서양인들이 다시 와서 북경을 함락시키니, 천하를 잃었다. 승격림심은 자살로써 사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당시 시국에 대한 진정한 평가라고 하겠다.

빅토르 위고, 원명원의 소설에 분노하다

청조의 행위에 영국과 프랑스는 당연히 분노한다. 그들은 전면전을 부르짖으며, 1860년 7월 대거 중국을 침략한다. 이때 영국은 173척의 군함과 1만8천명의 사병을, 프랑스는 32척의 군함과 7천명의 사병을 출정하여 연합군을 구성한다. 이렇게, 영불 연합군은 총 205척의 군함과 2만5천명의 사병을 거느린 대규모 진용을 갖춘다. 이것은 강화 조약을 무시한 청조의 책임을 철저히 묻기 위한 것이었다.

1860년 8월 1일, 영불 연합군은 대구(大沽) 북쪽에 위치한 북당(北塘)에 상륙하여 대구의 포대를 포위한다. 승격림심은 과거 하북성 평원에서 태평천국의 군대를 몰살 시킨 맹장이었다. 그러나 몽고 기병대의 장군이라는 배경 때문일까, 배를 타고 온 영불 연합군이 내륙 전투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한다. 이러한 연유로, 그는 북당에 전혀 전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전투의 결과, 영프 연합군은 쉽게 승리했고, 그들은 대구와 천진을 차례로 접수했다.

전쟁에 패한 청조는 협상에 나선다. 계량(桂良)은 다시 한번 천진을 향하게 되지만, 그는 상황이 과거보다 더 불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예상과 다름 없이, 영불은 ‘천진조약’의 전면적 이행 외에도, 천진항을 통상항으로 개방할 것과 배상금 증액 및 북경에서의 조약 갱신을 요구했다. 또한, 합의서에 황제가 반드시 정식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함풍제가 이민족과의 교섭을 허락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요구사항을 거절하자, 전쟁은 다시 시작된다. 9월 21일, 승격림심의 기마병 군대가 북경 교외의 팔리교(八里橋)에서 전원 몰살되자, 이 소식을 들은 함풍제는 황급히 수렵(狩獵)을 명목으로 승덕(承德)의 피서 산장으로 도피한다. 우매한 황제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북경을 떠난다. 황제는 이듬해 7월 17일 태평천국과 영불 연합군의 내우외환 속에서, 향년 30세에 불과한 나이에 병을 얻어 산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영불 연합군은 황제가 없는 북경을 바로 점령한다. 이제, 북경에는 보복의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10월 18일, 강희제(康熙帝)이래로 계속 확충되어온 황제의 정원인 원명원(圓明園)이 영국측 전권 협상 대표인 엘진(James Bruce, Earl of Elgin)의 명령에 의해서 방화된다. 불은 이틀간 지속되는데, 도망치려는 대신들과 궁녀들은 궁 안에 갇힌 상태에서 산채로 불에 타 죽었다. 영국 통계에 따르면, 6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문물이 전리품처럼 영국으로 넘어갔고, 비슷한 가치의 서적과 도자기 및 가구 등의 물품들이 화재에 전소했다.

이러한 폭거는 아무리 보복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문화의 정수인 원명원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사건이다.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1861년 11월 25일, 모군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원명원을 찬양하는 한편, 전쟁이 결국 강도 두 명의 승리로 끝났다고 하며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였다. 그는 서신에서 강도 두 명은 바로 프랑스와 영국을 의미한다고 직접 지적했다.

치욕의 조약

1860년 10월 24일, 25일 함풍제의 남동생 공친왕(恭親王) 혁흔(奕訢)은 청조의 대표로서 러시아의 중재 조정을 통해서 영불과 ‘북경조약(北京條約)’에 서명한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천진조약(天津條約)’의 완전한 승인
2. 천진항을 통상항으로 개방할 것
3. 저렴한 중국 노동력의 수출을 허가할 것
4. 구룡(九龍) 할양
5. 영불 배상금 각 8백만량 증액, 위로금 영국 5십만량 프랑스 2십만량 지급

위의 조약 내용은 ‘천진조약’에 비교할 수 없이 치욕적이다. 청조에게는 조금의 협상 여지도 없었고, 조약은 일방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유리했다. ‘북경조약’을 체결한 이후, 중국의 관세는 반드시 영국인의 감독 하에서 정해야 했고, 우정 사업 또한 반드시 영국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했다. 가장 가증스러운 내용은 아편무역마저 강제로 합법화 됐다는 것이다.

사실, 1842년 체결된 ‘남경조약’에는 전쟁의 원인인 아편무역 문제가 한 글자도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영국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끄러운 아편 판매 내용을 분명하게 조약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16년이 지나자, 영국은 날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 속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편이 가져다 주는 막대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목전의 이익 앞에서는 영국 신사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강도로 돌변한 것이었다.

관련된 사실 하나는, 아편 판매의 합법화가 전쟁의 최종 목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영불 연합군의 전쟁은 ‘제2차 아편전쟁’이라고 불린다. 아편 판매가 합법화 되면

서, 중국의 아편 수입량은 해가 바뀔 수록 증가했다.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면서, 바람에도 쓰러질 듯 바싹 마르고 거무튀튀한 모습이 서양인이 보는 전형적인 중국인이 되었다. 중국인에 대한 모욕적인 ‘동방병자(東亞病人; sick man of East Asia)’라는 표현은 이렇게 생겨났다.

영국과 프랑스만 중국을 강탈한 것은 아니었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을 자청하던 러시아도 결국 진면목을 드러낸다. 11월 14일, 러시아는 중국과 영불간 협상 조정에 공을 세웠다는 명목으로 ‘북경조약’을 병합하여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1864년 청조는 동북과 서북 지역의 약 1백4십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러시아에게 할양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북 지역으로는 바이칼호(Lake Balkhash) 동쪽 방향 44만 평방킬로미터, 동북 지역으로는 흑룡강 북쪽과 스타노보이(Stanovoy) 산맥 남쪽 사이의 60만 평방킬로미터 및 우수리 강 동쪽의 10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르렀다.

제2차 아편전쟁은 1857년 12월 29일 영불 연합군이 광주를 공격하면서 시작되었고, 1860년 10월 24일 ‘북경조약’을 체결하면서 종결되었다. 같은 기간 청조는 장강 하류 유역에서 태평천국과도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서태후(西太后)의 수렴청정(垂簾聽政)

함풍제는 임종 전에 유언을 남긴다. “이친왕 재원(怡親王載垣), 정친왕 단화(鄭親王端華), 호부상서 숙순(戶部尚書肅順) 등 8인을 고명대신(顧明大臣)으로 명하노니, 황태자 재순을 보필하여 섭정하라” 함풍제는 자신과 가까운 8인을 고명대신으로 임명하고, 그들의 섭정을 통하여 이제 막 5세에 불과한 황태자를 보필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함풍제의 유언에 분노하는 한 여자가 있었으니, 그녀는 다름아닌 황태자의 생모이며 훗날의 자희태후(慈禧太后)인 나라(那拉)씨이다. 그녀는 18세에 입궁, 22세에 황태자를 생산한 공로로 의귀비(懿貴妃)로 책봉된다.

“새로 즉위한 황제는 내 아들이고, 황제의 천하는 바로 나의 천하인데, 어떻게 나를 제치고 늙은 대신들에게 섭정을 맡긴다는 말인가?” 그녀는 이를 갈면서 방법을 찾는다.

자희태후는 자식이 없는 자안태후(慈安太后) 누호록씨와 공친왕(恭親王) 혁흔(奕訢) 및 승격림심 등과 협력을 꾀한다. 그녀가 자안태후를 선택한 것은, 자안태후가 성격이 온화하고 둘 간의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이었다. 공친왕(恭親王) 혁흔 및 승격림심과 협력한 것은 그들이 고명대신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그녀가 알았기 때문이다. 혁흔이 영국, 프랑스, 미국 및 러시아와의 협상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열강과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을 갖게 되었고, 혁흔을 잘 다루면 곧 열강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1861년 11월 초, 자희태후 등은 일거에 고명대신 8명을 몰아낸다. 숙순은 참수되었고, 이친왕 재원과 정친왕 단화는 자진하라는 명에 처해진다. 그 밖의 5명은 면직되거나 혹은 유배에 처해진다. 역사는 이 사건을 ‘신유정변(辛酉政變)’으로 기록한다. 장애물을 제거한 후 자희황후는 새로운 황제의 연호를 동치(同治)로 정하고, 혁흔을

의정왕(議政王)에 책봉한다. 그녀는 심복들을 조정의 요직에 임명하고, 이어서 자안태후와 함께 수렴청정(垂簾聽政)을 시작한다.

수렴청정(垂簾聽政)이란 나이 어린 황제를 대리해서 황태후가 국정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당시에 여성은 남성 앞에서 얼굴을 노출할 수 없었으므로, 황태후는 황제의 옥좌 뒤에서 주렴으로 노출을 막고, 대신들과 의정을 보는 수 밖에 없었다. 5세에 불과한 어린 황제는 연호에 따라서 동치황제라고 불렸다. 자안태후는 동궁(東宮)에, 자희태후는 서궁(西宮)에 살았기 때문에, 각각 동태후와 서태후로 칭해 졌다.

자안태후는 1881년 세상을 떠나는데, 그녀 나이 44세의 일이다. 그녀는 생전에 국정을 관여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일을 자희태후가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자희태후는 1861년 수렴청정을 시작한 이래 190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48년 동안 청 말기의 국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변질된 양무운동(洋務運動)

두 차례 아편전쟁의 고통을 겪은 청조는 결국 열강의 국력을 깨달았다. 태평천국의 난을 통해서 청조의 군사력이 얼마나 허술한 지도 날낱이 드러났다. 연이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은 물론 마음 아픈 일이지만, 태평천국의 난에서 공을 세운 증국번(曾國藩)과 이홍장(李鴻章)을 필두로 한 한족 관료들이 조정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들 개혁파는 구국을 위해서 반드시 서양의 공업과 군사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혁파에는 임칙서와 절친한 친구인 위원(魏源)이 있었다. 그는 서양의 기술을 배워서 서양을 이겨야 한다(師夷長技制夷)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해외 선진 과학기술을 배우는 것이 외국의 침략을 억제하고 중국을 부강하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1861년 이들은 ‘자강운동(自強運動)’을 개시한다.

그러나, 중국 수천년의 전통과 조정의 수구 세력 속에서 낡은 구습을 타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밖에, 증국번과 이홍장 등도 비록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구체제에서 성장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지닌 그들에게 체제에 대한 도전과 개혁을 주문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였다. 이러한 이유로 ‘자강운동’은 수구 세력과 절충하여, ‘중체서용(中體西用)’의 개혁으로 전개되는 한계를 보인다.

‘중체서용’이란 말 그대로 오래된 중국 체제가 주체가 되어 서양의 실학을 도입한다는 의미이다. 저자가 보기에 이러한 개혁은 마치 전통 저고리 위에 서양 양복을 끼입는 괴상한 모양새와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혁파는 당시 공업, 군사 및 교육 부문에 상당한 자극을 주었다. 그들의 주요한 업적은 다음과 같다.

1. 동치2년(1863년) 이홍장 상해에 외국어 학교 설립
2. 동치4년(1865년) 이홍장 상해에 강남기기제조총국 설립 및 번역관 부설
3. 동치5년(1866년) 좌종당(左宗棠) 복주선정국(福州船政局) 설립

4. 동치11년(1872년) 증국번 이홍장 미국 유학생 파견
5. 광서2년(1876년) 이홍장 육군군사 습득 목적 독일 파견, 선박제조 습득 목적 영국 프랑스 파견
6. 광서6년(1880년) 이홍장 천진에 수사(水師)학당 및 전보국 설립
7. 광서8년(1882년) 이홍장 여순 군항 건설, 상해 기기직포국 개설
8. 광서11년(1885년) 이홍장 천진 무비(武備)학당 설립
9. 광서14년(1888년) 이홍장 북양해군 창립

이렇게 증국번과 이홍장 일파가 추진한 ‘자강운동’으로 중국을 구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강운동’이 전개된 30년 후에 비로서 드러난다.

제4장 청일전쟁(淸日戰爭): 근대화된 무기, 바뀌지 않는 의식

근대화된 일본, 암투 속의 청조

청일전쟁으로 가는 길목: 오키나와

1874년 만 18세의 동치제는 자희태후로부터 실권을 회복하고 자신의 친정(親政) 체제를 시작한다. 그러나 운명이었을까, 그는 다음해 세상을 떠나고 만다. 동치제의 재위 기간 동안에는 태평천국의 난이 잦아 들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외적의 침입도 없었다. 점차 무사안일에 빠지게 된 동치제는 외부 행차가 잦아졌다. 밤마다 궁 밖으로 빠져나가 기방 출입을 하는데, 그가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것은 매독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본토에는 전쟁이 없었지만, 동치제의 친정 체제는 오래지 않아 일본의 대만 출병을 겪는다. 1871년 12월, 오키나와에서 온 배 한 척이 대만에서 좌초하고, 대다수 선원들이 대만 원주민들에게 살해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일본은 중국에 책임을 묻지만, 청조는 오키나와와 대만이 모두 중국에 속하므로 내정 문제라는 이유를 들어서 일본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책임 추궁과 청조의 대응 모두 근거가 있었다. 왜냐하면, 오키나와는 명나라 홍무(洪武) 5년(1372년) 중국을 종주국으로 인정한 이래로 5백년간 중국 속국의 신분으로 명조와 청조에 조공을 해왔다. 그리고, 1609년에 이르자 일본 사쓰마 국이 오키나와를 침략하여 복속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키나와는 중국과 일본 두 나라를 모두 종주국으로 섬기는 상태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 1871년 대만 사건에 이르렀다. 즉, 대만 사태가 터지자 비로서 양국간의 비정상적인 균형이 깨진 것이었다.

회군(淮軍)과 일본군 간의 대치

1874년 5월, 일본 내무상 오쿠보 도시미치는 대만으로 출병한다. 그는 대만 출병을 통해서 메이지유신으로 실업 상태에 빠진 무사들 수십만명의 불만을 진정시키려 했다. 3천6백명으로 구성된 일본군은 5월 중순 대만을 향해 출병하여, 대만에 거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한다.

기세등등한 일본군에 대항하여, 청조 측에서는 5월 하순 이홍장에게 명을 내려 6천5백명의 회군을 조직하고 대만으로 파병한다. 대만은 순식간에 전운에 휩싸이고, 중일은 일촉즉발의 상태가 된다. 중일 양국은 천년의 세월을 친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는데, 근대에 들어서 이렇게 교전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이다.

중일 양국은 군사적 대치와 함께, 북경에서 치열한 협상을 벌인다. 결과적으로 청조가 양보하게 된다. 왜냐하면 당시 청조는 신강(新疆)을 회복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격렬한 분쟁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청조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만에서 일본을 인정하고, ‘대만북경전약(台灣北京專約)’을 체결한다.

10월이 되자, 일본은 대만 철군을 조건으로 청조에 은전 50만량을 요구한다. 청조가 요구에 양보하자, 일본은 오키나와가 중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게 된다. 상황이 정리되자 일본은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1879년 그 명칭도 현재의 오키나와로 개명한다.

오키나와 사건 이후로 과거 문명을 공유하던 중일 양국 관계는 심각한 적대관계로 악화되었다. 오키나와를 잃게 된 청조는 역사적으로 중화 문명을 배우던 섬나라가 갑자기 과거와 달라졌다는 느낌과 함께, 국력이 약한 틈을 타서 열강과 함께 중국을 괴롭히는 일본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일본 입장에서 오키나와 사건을 보면, 중국으로부터 쉽사리 이권을 탈취하는 결과를 얻어냈고, 이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야심에 불을 지르게 된다. 1894년 한반도의 종주권을 둘러싸고 청일 양국은 드디어 전쟁을 감행한다(청일전쟁).

이화원에 밀린 군비 예산

광서 20년(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한다. 황위가 동치제에서 광서제로 승계된지 20년이 지난 때이다. 동치제는 19세에 세상을 떠나고 슬하에 아들이 없게 되자, 서태후는 겨우 3살에 불과한 동치제의 사촌 동생 재침이 황위를 계승하도록 한다. 이후 연호에 따라서 광서제로 칭한다. 광서제는 중국의 국난 속에서 불운한 일생의 황제가 되었다.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전 양국의 군사력을 살펴보자. 1885년에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이 관장하는 북양함대(北洋艦隊)에는 2천톤급 이상 전함이 7척을 포함하여, 총톤수 2만7천톤의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세계 제8위, 아시아 제1위의 수준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일본 해군은 2천톤급 이상 전함 5척을 포함해 총톤수 1만7천톤의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세계 제11위 그리고 아시아 제2위의 수준이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청조는 일본에 비해서 해군력이 우월했지만, 이후 청일 양국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양 국가의 국운은 서로 엇갈리게 된다.

1888년, 청조는 공식적으로 북양함대의 창설을 선언한다. 이것은 비록 희소식이긴 하지만, 이후 북양함대는 예산 삭감 때문에 전쟁 발발 시점에 이르면 새로운 전함은 고사하고, 구 전함을 유지하거나 포탄을 구매하는 것도 벅차게 된다. 전 세계가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 해군력은 전진은 고사하고 오히려 퇴보한다. 북양함대 1년 예산에 비록 2백만량의 유지보수 항목이 있었지만, 청조는 서태후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이화원(頤和園) 재건에 전용하고 만다. 이제 남은 예산은 겨우 5십만량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상대방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같은 1885년, 일본 정부는 이론적으로 북양함대를 추월하는 군비 계획을 예정한다. 일본은 국가 재정수입의 60%를 모두 근대식 육해군을 양성하는데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892년에 이르자, 명치 천

황은 예정보다 더 빠르게 실행되고 있는 계획을 더욱더 앞당긴다. 즉, 6년의 기간 동안에, 매년 황실 경비에서 30만량 그리고 정부 관원들의 월급에서 10%를 떼어내어 선박 건조에 전용한 것이다. 이때, 청조의 정원호(定遠號)와 진원호(鎮遠號)를 대표로 하는 북향함대와 일본의 마츠시마호(松島號)와 요시노호(吉野號)를 대표로 하는 연합함대를 서로 비교하면, 일본의 연합함대가 설비와 성능 등 모든 면에서 크게 우월했다.

육군의 상황은 어땠을까. 청조의 향군(湘軍)과 회군(淮軍)은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면서 명성을 얻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군이 사라진 군대에는 서서히 군기문란과 부패가 진행되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상비군 6만3천명 외에 예비군 23만명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륙에서의 가상전쟁을 상정한 가혹한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말뿐인 ‘제당(帝黨)’, 부패한 ‘후당(后黨)’

군사 측면 이외에도, 청조 내부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1889년, 광서제가 성년이 되자 서태후는 권력을 황제에게 돌려 주지만, 그녀의 권력욕은 결코 순순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서태후의 주변에는 중앙과 지방의 관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은 ‘후당(后黨)’을 결성하여 황제의 권력을 견제했다.

한편, 광서제는 서태후의 꼭두각시 역할에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이를 탈피하여 실권을 장악하려 했다. 이러한 광서제를 지원한 이가 바로 황제의 스승이던 옹동화(翁同龢)이다. 그는 ‘후당’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정의 고위 관원들을 모아서 ‘제당(帝黨)’을 결성했다. ‘제당’에는 우국지사가 적지 않았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청류(清流)’라고 불렀다. ‘제당’은 비록 절절한 애국심을 내세우고 국정을 논하곤 했지만, 사실 그 내용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밖에, 옹동화와 이홍장 사이에는 불행히도 뿌리 깊은 은원관계가 있었다. 옹동화의 형 옹동서(翁同書)는 태평군과의 전투 중에 도피한 사실이 있었는데, 증국번과 이홍장은 이에 탄핵을 상소하고, 사형을 주장했다. 나중에 옹동서는 집안에서 두 번이나 황제의 스승을 배출한 공로로 사형을 면하게 되지만, 옹씨 집안은 이홍장에 대한 원한을 삭힐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시간이 흘러도 옹동화는 이홍장의 ‘자강운동’을 항상 견제하고 방해한다.

또한, ‘제당’은 애국 정서에 매몰되어, 열강과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결사항전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된다.

딜레마에 빠진 이홍장

청일전쟁 십년 전, 중국과 프랑스는 베트남 영토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다. 이홍장은 전쟁을 피할 수 있는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하지만, 속 좁은 ‘제당’은 이홍장에 대한 사적인 감정 때문에 프랑스와의 결사항전을 주장하며 양보하지 않는다. 전쟁으로 이어진 결과, 북양함대와 함께 출정한 남양함대가 복주(福州)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중국은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역사는 ‘청불 전쟁’이라고 한다.

이홍장은 탄식 속에 사태의 발전 과정을 지켜본다. 그는 ‘제당’의 공격을 피하고 ‘자강운동’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 부지불식간에 ‘후당’과 가까워진다. 이것이 ‘자강운동’에 장애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1890년 이래로 ‘후당’ 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서태후의 환심을 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후당’은 그녀의 60세 생일을 최대한 성대하게 축하하려고 한다. ‘후당’의 돈을 받은 이홍장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북양함대의 예산을 이화원의 재건에 전용하게 한다. 이홍장은, ‘제당’의 무조건적인 애국주의와 ‘후당’의 탐욕 그리고 만주족 대신들의 질투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홍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회군과 북양함대에 의존하는 것 뿐이었다. 궁내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이홍장은 자신이 의존하는 군대를 전쟁 위협에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는 묘수가 필요했다. 대만 사태 이후로, 이홍장은 비록 일본을 경계하면서도 계속해서 일본과의 전쟁을 피해 왔다. 즉, 과감한 전쟁은 그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조선 반도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이홍장은 여전히 러시아와 영국을 통해서 조정을 시도하고, 선불리 전쟁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한다.

그러나, 모든 국력을 쏟아부어 전쟁을 하려는 일본은 조정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이홍장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사이에 청조는 군비를 전용하고, 이는 군대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결과가 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회복할 수 없는 참패로 이어진다.

이홍장의 문하생 정여창(丁汝昌)의 부패

1894년 7월 25일 오전 7시 45분, 일본 해군 제1 유격대는, 중국에 아직 정식으로 선전 포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풍도(豊島)에서 공격을 개시한다. 이것을 ‘풍도해전(豊島海戰)’이라고 한다.

‘풍도해전’에서 북양함대는 포함인 광을호(廣乙號)과 조강호(操江號), 그리고 운송함인 고승호(高陞號)을 잃는다. 고승호에는 조선 반도를 향해 가고 있던 1천명의 청군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침몰 후에 다시 일본군의 총격을 받아 최소 7백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이 막 시작되자마자, 순양함 제원호(濟遠號)는 바로 도망친다. 제원호의 함장 방백겸(方伯謙)은 그 죄에 책임을 물어 2개월 후에 사형에 처해 졌다. 방백겸은 1866년 설립된 복주선정학당(福州船政學堂)의 제1기생으로서, 졸업 후 그는 우수 인재 자격으로 영국 유학까지 다녀 왔다. ‘자강운동’이 배출한 인재가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것이었다. 한탄스럽기 그지 없는 일인데, 최근에 복주(福州)의 한 연구소가 방백겸의 명예 회복을 시도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8월 1일, 청일 양국은 정식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즉시 전쟁 상태로 돌입한다. 청군은 ‘풍도해전’ 이후에도 계속 패전을 면치 못했다. 9월 15일, 1만 7천명의 청군은 1만 6천명의 일본군에게 공격을 받아, 평양을 포기하고, 6일 동안 250킬로미터를 미친듯이 내달려서 압록강 북쪽까지 도착한 후에 중국 국내로 도망친다. 여기서 중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완전히 잃고 만다.

평양이 공략당한 지 이들이 지난 시점에, 세계 역사상 최초로 장갑선이 대규모 근대 해전에 등장한다. ‘황해해전(黃海海戰)’이 시작된 것이다.

참고로, 북양함대를 지휘한 정여창(丁汝昌)은 원래 마필 밖에 모르는 기병 출신이다. 그런 정여창이 파격적으로 수사제독(水師提督)에 임명되었다. 이것은 그가 스승 이홍장의 심복이었기 때문이다. “조정에 신경쓰지 말고 오로지 나의 방패가 되면 된다. 나머지 일은 알아서 처리하라.” 이것이 이홍장이 정여창에게 기대한 최대의 임무였다.

정여창이 스승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눈 앞의 위기도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군함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했다. 심지어 위해위(威海衛) 함장 숙소 마저도 임대를 주었는데, 일설에 따르면, 임대를 거절한 자는 모두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혹시 상인이었다면 모를까, 북양함대 함장 신분인 정여창의 이러한 행위는 그야말로 국가의 수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식적 패배, 장렬한 전사

1894년 초가을, 일본 연합함대는 계속해서 위해위(威海衛)에 접근하며 청군에 싸움을 걸어 온다. 그러나 북양함대는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런데, 멀리 자금성에 있는 광서제가 이러한 해군의 침묵에 인내심을 잃기 시작한다. “북양함대는 바다가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일본군이 두려운 것인가?”

황제의 노여움을 달라고 여론의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홍장은 어쩔 수 없이 황해를 향해서 항행을 명령한다. 그런데, 북양함대는 돌아오는 길에 일본 연합함대를 맞닥뜨리고, 대동구(大東溝) 남쪽 방면 황해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다.

양측의 전투는 정오에 시작하여 오후 5시 반쯤까지 계속된다. 정여창이 지휘하는 청조의 북양함대는 10척의 군함으로 구성되어 총톤수 3만 1천톤, 평균 시속 13해리, 대포 21문 그리고 속사포 8문의 무력을 갖추고 있었다. 한편, 이토 스케유키 사령관이 지휘하는 일본 연합함대는 12척의 군함으로 구성되어 총톤수 4만톤, 평균 시속 16해리, 대포 11문 그리고 속사포 67문의 무력을 갖추고 있었다. 전투가 시작된 지 오래지 않아서, 북양함대의 기함인 정원호는 포탄에 적중되었고, 정여창은 2층에서 갑판으로 낙상하여 중상을 입는다.

정여창은 평소 위기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막상 실제 전투가 시작되자 지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휘관이 없는 북양함대는 각개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초용호(超勇號)와 치원호(致遠號) 그리고 경원호(經遠號) 등이 차례로 격침되었고, 북양함대는 완전히 진용이 무너졌다.

이 전투에서 북양함대는 군함 5척이 격침되고, 4척이 크게 파손되었다. 전사자는 치원호 함장 정세창(鄭世昌)을 포함하여 총 800명에 달했다. 정세창 역시 영국 유학을 다녀 온 수재였다. 그는 전함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물에

빠진 후에도 구조를 거절한다. 그는 애견 태양(太陽)과 함께 바다에서 생을 마감한다. 정세창은 방백겸과 똑같이 ‘자강운동’이 배출한 인재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 전혀 다른 최후를 선택한다.

한편, 일본 연합함대의 지휘선은 마츠시마호(松島號)에서 요시노호(吉野號)에 이르기까지 총 5척의 군함이 크게 파손되고, 전사자는 약 3백여명에 달했다.

여순 대학살

황해 해전에서 참패를 겪은 이홍장은 일본군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는 북양함대에 위해위로 회항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전함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치명적인 실책이었다. 이로 인하여, 정원호와 진원호 등의 주력선을 포함한 수많은 전함들이 고철로 변했다. 청군이 스스로 활동 반경을 제한한 것은 일본군에 제해권을 갖다 바친 결과와 같았다.

1894년 10월 24일,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지휘하는 3만명의 제1군이 압록강을 넘어서 요양(遼陽)으로 진군한다. 오야마 이아오(大山巖)가 이끄는 2만 5천명의 제2군은 전혀 저항을 받지 않고서 요동 반도 화원항에 상륙하여, 여순으로 전진한다. 일본군이 드디어 중국 본토를 침공한 것이다.

11월 7일, 서태후의 환갑 생일날 자금성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빠져 들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 금주(金州)와 대련(大連) 및 여순(旅順)은 차례로 일본군 손아귀에 넘어 간다. 곧이어 여순에서는 평민을 학살하는 끔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월 12일, 뉴욕 세계 신문(New York World)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다. “학살은 3일간 지속됐다. 무기가 없는 일반 백성마저 자신의 집에서 살해 당했다. 시체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도로 난도질 당했다__종전 기자 크릴만(James Creelman) 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미 평론(North American Review)은 ‘여순의 진실(The Truth about Arthur)’이라는 평론을 발표한다. 그 평론에 따르면, 3일간의 대학살 후에 여순에는 고작 36명의 중국인만이 살아 남았다고 한다.

일본의 사료(史料)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후쿠오카 기니치 신문(福岡日日新聞)에는 12월 19일 여순 사태에 참여한 제24연대의 한 중사가 쓴 편지가 실렸다. “동트

기 전에 청군 13명을 체포했다. 나중에 사병 초소에서 한 명씩 칼로 찔러 죽였다. 3명이 형을 집행 했을 것이다. 여순으로 도망친 청군 혹은 부상병은 집마다 2, 3 명씩 숨어 있었는데, 모두 참수하거나 찔러 죽였다. 우리가 가는 곳은 모두 피바다가 되었다.”

다음은 제1사단 야전 포병 제1연대 운수병 오노(小野六藏)가 쓴 일기 내용이다. “11월 25일, 집집 마다 시체 2, 3구가 있었다. 백발의 할아버지와 아기가 함께 죽어 있었고, 흰 머리 할머니와 며느리 시체가 서로 손을 잡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끔찍한 상황이었다.”

학살 사건이 보도되자, 일본 수뇌층은 “죽은 자들은 군복을 입고 도망친 청군이다”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그렇다면, 오노의 일기 중에 등장하는 백발의 할아버지와 아기, 그리고 흰머리 할머니와 며느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뉴욕세계신문은 1894년 11월 28일 ‘문명전쟁(文明戰爭)’을 주장했던 일본이 드디어 감춰진 야만을 드러냈다고 보도한다. 국제 여론이 나빠지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다. “경솔히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적절하지도 않다. 대응하지 말고, 나중에 반박한다.”

일본의 이러한 방침은 그후 청일전쟁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이 신봉하는 무사도 정신에 먹칠하는 것이다. 관련해서, 중국의 관련 기록에 따르면, 여순 대학살에서 사망자는 1만 8천명에 달했다.

30년 ‘자강운동’이 6일만에 붕괴하다

일본의 다음 목표는 북양함대를 철저히 궤멸시키는 것이었다. 1895년 1월 20일, 일본 제2군은 산둥성 영성만(榮成灣)에 상륙하여 위해위(威海衛)를 봉쇄한다. 이어서 일본 연합함대는 위해위 남북 해안의 포대를 점령한다. 이렇게 되자, 위해위에서 포위당한 북양함대는 마치 독 안에 든 쥐와 다를 바 없었다.

포위된 북양함대는 해상과 육상에서 모두 포격을 당한다. 그 와중에 정여창은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남은 군함 11척과 대량의 군용 물자는 모두 일본군의 전리품이 되었다.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북양함대는 이렇게 해서 역사의 무대에 작별을 고한다.

북양함대가 궤멸되는 비슷한 시기에, 광서제는 최후의 도박을 건다. 그는 6만명의 향군에게 반격을 명한다. 그러나 단 6일만에 전선은 완전히 붕괴되고, 산해관(山海關) 근처의 요새도 하나씩 적에게 뚫린다. 청일전쟁에서 패전하자 제당은 실각하고, 기회를 노리던 후당이 강화 협상을 주도한다.

3월 14일, 이홍장은 강화를 구걸하기 위해 천진을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 간다. 그 후 1개월 동안, 양측은 배상금과 영토 분할을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협상할 때마다 이홍장은 수세에 몰렸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3월 24일 이홍장은 폭도의 습격을 받는데, 열강의 간섭을 두려워한 일본은 결국 휴전에 동의한다. 4월 17일,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는 ‘마관조약(馬關條約)’에 서명한다. 이로써 9개월간 계속됐던 청일전쟁은 드리어 막을 내린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승인할 것
2. 요동반도, 대만, 평후열도를 일본에 할양할 것
3. 배상금 2억량 은전

4. 사시(沙市), 중경(重慶), 소주(蘇州)와 항주(杭州)를 통상항으로 개항할 것
5. 일본인이 통상항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것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열강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난 일본이 열강이 차마 압박으로 꺼내지 못하던 영토 할양을 얻어 내자 그들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다. 러시아와 프랑스 및 독일은 함께 이익을 제기하고, 러시아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일본을 굴복시킨다. 일본은 요동반도를 청조에 반환하지만, 일본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 없었다. 즉, 일본은 그 댓가로 청조에게 3천만량의 배상금을 요구한다.

청일전쟁 후에, 극동의 세력 균형은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일본은 러시아를 가상적국으로 삼아 준비하기 시작한다. 일본은 청조의 배상금으로 8개의 제련소를 짓고, 국력을 기른다. 일본의 부상으로 동아시아는 영국과 러시아간의 구도에서 일본과 러시아간의 구도로 전환된다. 결국 나중에는 중국 영토에서 러일전쟁이 발발한다.

다른 한편으로, 청조는 연속된 패전으로 인하여 잠자는 용의 체면을 구긴 것은 물론, 열강의 이권 침탈의 대상이 되고 만다. 독일은 청도를 점령하여, 산둥으로 세력 범위를 넓힌다. 러시아는 여순과 대련을 점령하여, 동북3성으로 세력을 확장한다. 동북3성은 청조가 배상금 3천만량으로 일본에게 막 반환받은 지역이기도 하다. 남쪽으로는 프랑스가 광주만을, 영국이 구룡반도를 조차한다. 일본은 청조에게 복건성을 타국에 할양하지 못하도록 요구한다. 이것은 일본이 복건성을 자신의 세력 범위 내로 편입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가장 원통한 일은 청일전쟁의 결과 30년을 공들인 ‘자강운동’이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이었다. 중국은 이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